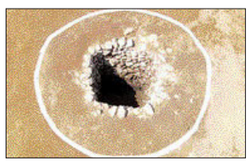
광주 동림동 유적서 백제시대 조성 추정 목조우물 2곳 발굴

광주시 북구 동림동 유적에서 삼국시대 취락시설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우물 2개〈사진〉가 확인됐다.

호남문화재연구원은 30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유적에서 4~7세기 백제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목조우물 2곳을 발굴 완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림동 유적에서 이미 발굴된 주거지 100여기와 지상건물지 80여기를 포함해 고대 취락시설의 조성방법과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물 2곳 가운데 1호는 원형이 심하게 손상됐으나 목재를 사각형으로 짜서 만든 井자형 우물로 확인됐다. 2호 우물은 1호와 비슷한 구조를 갖췄다. 또 동림동 유적 저습지에서 출토된 목제 활대는 관계기관에 보존처리를 의뢰한 결과 뽕나무로 확인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2007 수능 모든영역 쉽게 출제"

"난이도 작년수준… 11월 16일 시행"

교육평가원 시행계획 발표

오는 11월16일 시행되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모든 영역에 걸쳐 학교 공부에 충실한 수험생이 풀기 쉽도록 출제된다. 〈관련기사 8면〉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0일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선택과목은 난이도 조절에 중점을 둬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한다는 방침"이라며 "학교수업을 충실히 한 수험생과 EBS 강의를 들은 수험생이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만점자가 많아 변별력 논란을 빚었던 언어영역의 난이도 조정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험생이 쉽게 느끼도록 하겠다. 난이도를 높여서 수험생을 곤란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008학년도 문제은행식 출제는 부분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과목부터 시도하겠다"며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은 당장 2008학년도부터 가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직업탐구 영역에 이어 올해는 제2외국어 영역에서 모의수능 때 시험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력과 추리 및 분석 등 탐구 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내고 점수 분포가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이 균형있게 출제된다.

수능시험은 이미 공지된 대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6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13일에 통지된다. 성적표에는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9등급)만 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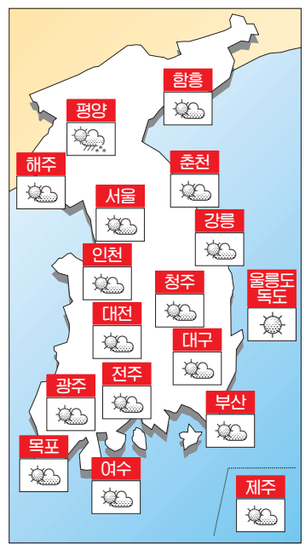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카메라 펜 등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1년간 응시기회를 박탈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낮 동안 비교적 포근

3월 31일 (음 3월 3일) ◇전국날씨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맑겠으나 구름이 많아지겠다.

광 주	맑은뒤 구름많음	0~18℃
목 포	맑은뒤 구름많음	2~16℃
여 수	맑은뒤 구름많음	4~15℃
완 도	맑은뒤 구름많음	1~15℃
구 례	맑은뒤 구름많음	-1~18℃
해 남	맑은뒤 구름많음	-2~16℃
장 흥	맑은뒤 구름많음	-2~16℃
고 흥	맑은뒤 구름많음	0~16℃
순 천	맑은뒤 구름많음	-3~18℃
영 광	맑은뒤 구름많음	0~15℃
진 도	맑은뒤 구름많음	0~17℃
전 주	맑은뒤 구름많음	-2~17℃
남 원	맑은뒤 구름많음	-4~18℃
정 읍	맑은뒤 구름많음	-2~17℃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동~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03:24 15:34 썰물 08:35 20:47
여수 밀물 10:19 22:45 썰물 04:05 16:19

▲해뜸 06:21 ▲해짐 18:53 ▲달뜸 07:11 ▲달짐 21: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4/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날 씨						
최저/최고	8/17	9/17	5/19	5/16	3/18	2/19

하이브리드 자동차 광주에 첫 선

30일 광주에 첫 선을 보인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차종 : 기아자동차 프라이드). 광주시는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5억6천만원을 들여 20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들여올 예정이며, 이날 4대를 도입한 것이다. 이 차는 저속주행시에는 전기모터로 운행하고 고속주행시에는 가솔린 엔진으로 움직인다. 가격은 1대당 3천670만원.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작년 하루 867쌍 결혼 352쌍 이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867쌍(광주 24쌍, 전남 27쌍)이 결혼하고 352쌍은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30일 전국의 읍·면사무소와 시·구청에 신고된 혼인 및 이혼 신고서를 분석한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결혼한 커플은 전년에 비해 1.7% 늘어난 31만6천375쌍, 이혼한 커플은 7.8% 줄어든 12만8천468쌍이었다. 결혼한 남녀 중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인 재혼커플은 7만9천600건으로 전체 결혼커플의 25.2%로 사상최대였다. 처음 결혼한 남성의 평균 나이는 30.9세, 여성은 27.7세였다.

재혼커플이 25% 사상 최대

황혼이혼 10년전 비해 2.3배

반면 재혼한 남성의 평균 나이는 44.1세, 여성은 39.6세로 초혼과 재혼 나이는 모두 높아지는 추세다. 여성 연상 커플의 비율은 12.2%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늘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모두 4만3천121건으로 전년의 3만5천447건에 비해 21.6%인 7천674건이 늘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전체 결혼건수의 13.6%에 달한다.

농림어업 종사 남성 8천27명 중 35.7%에 해당하는 2천885명이 외국인 신부를 맞았다. 전남의 경우 428명의 농업인이 외국인 여자와 결혼, 경북(482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과의 이혼은 2천444건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51.7% 증가했으며,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의 이혼도 1천834건으로 2.5% 늘어났다.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해 전체의 18.7%로 10년 전에 비해 2.3배 늘어나 황혼이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의 원인으로는 부부간 성격차이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문제 14.9%, 가족간 불화 9.5%, 배우자 부정 7.6% 등이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국내 갯벌 32년만에 절반으로

매립 영향…64년 3,905㎢ 올해까지 2,000㎢ 감소

해양생태계 보고로 불리는 우리나라 갯벌의 면적이 1964년 이후 올해까지 32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한국해양편람'에 나타난 1964년 국내 갯벌 면적은 3천905㎢이었으나 서해안 매립 등을 감안하면 올해 갯벌 면적은 2천㎢로 줄게 되고 2015년에는 1천500㎢ 이하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해안 개발이 본격화된 1987년 이후 올해까지 공식적으로 810.5㎢의 갯벌이 매립됐다.

지역별로는 새만금 사업(208㎢)와 경기 시화호(180㎢)가 48%를 차지, '갯벌 상실'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갯벌은 전남이 44%로 가장 넓고 경기 35%, 충남 13%, 전북 5%, 경남(부산 포함) 3% 등의 순이다.

연구원은 최근 10년 사이 연안 갯벌이 대규모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30~40%나 줄어들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 때문에 해양 매립공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변경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해양매립 사업 51건 중 환경상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은 15건(30%)에 이르러 10건 중 3건이 제동이 걸렸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말라카이트 검출 수입장어 유통

식약청 유통경로 추적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등 전국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장어 가공품 36건을 검사한 결과, 이 중 5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은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부적합 수입장어 가공품에 대해서는 회수·압류조치했으며,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수입·유통·판매업소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라카이트그린 검출로 판로가 막힌 중간 판매업자가 수입 부적합 제품을 반품 조치하지 않고 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시중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말라카이트그린은 환경부가 지난 2월 말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로 지정함으로써 조경용과 섬유 염색용 염료로만 사용할 수 있고, 식용 어류의 소독제 등 그 밖의 목적으로는 제조·수입·사용 등을 못하도록 금지됐다.

말라카이트그린은 지난해 10월 양식어류와 수입어류에서 검출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